

인사의 말씀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문연심

안녕하십니까?

e-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단풍과 열매로 가득하고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충성한 추수감사의 계절을 뒤로 하며 달력의 마지막장을 넘기는 분주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육아지원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가들의 다각적 학문 분야별 연구결과를 「동계·하계 연구모임」과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과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화', '융합화', '선도화' 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을 고려한 포괄적 관점에서 연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1월에 실시한 동계 연구모임은 『유아의 성향(Disposition) 이해하기』, 『유아교육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7월에 실시한 하계 연구 모임은 지역 연구 투어의 첫 번째 시도로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미디어 및 사진의 유아교육적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연구 투어를 계기로 저희 학회에 가입하며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신 신입회원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춘계학술대회는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영유아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영유아의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유아교육·보육통합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육아지원학회의 이기숙 초대회장의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라는 기조 강연은 현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많은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연 4회로 확대 발간하고 있는 「육아지원연구」는 학술적 연구 인프라 구축, 교육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며, 신뢰받는 학회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연구모임 및 학술대회 자료를 탑재하여 회원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 회원님들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2015년 1월에 개최될 동계 연구모임과 춘계학술대회도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활성화되고 비로소 그 가치를 기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OECD는 2001년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만3세부터 초등입학 전 유아를 위해 관장부서를 일원화하는 유아교육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2006년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만3세 미만 영아의 교육과 보호 제도의 연계 구축까지를 제안하였다. 이에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3-5세 무상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UNESCO에서도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발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양적 확대와 2015년까지 모든 유아를 위한 양질의 무상 의무교육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맞추어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면서 재정적 지원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이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요즈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간에도 불협화음이 일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가 가능할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신입원아 모집 기간을 맞아 어린이집의 3-5세 원아의 유치원으로의 대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불안의 정도는 매우 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주로 0-2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영아를 주로 담당하던 가정어린이집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교육감의 한시적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도 있고, 5600억의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토록 어려운 예산 확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도 갖게 된다. 행여라도 정치인이나 기관운영자,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대한민국의 3-5세 유아 모두가 동일하게 질 높은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누리과정의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연의 목적인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념과 용어 사용의 혼돈이 시정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은 만 5세(지금은 3-5세) 공통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초등과정이 6년간의 교육의 과정을 뜻하는 것처럼 3-5세 대상의 3년간의 교육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칭

할 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듯이 누리(과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07년 어린이집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보육과정이란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미 개념의 혼돈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유보통합의 첫 걸음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을 먼저 시도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당시 교육과학부(현 교육부)가 주도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통합 교육과정의 제정에서조차도 교육(과정)이란 용어 사용에 대한 보육계의 금기를 깨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3-5세 누리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이 운영 중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어휘가 사라지게 되면서(간혹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용어와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부가 강력하게 리드하는 교육요인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OECD는 2012년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관한 세 번째 보고서에서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 관리 방안을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교육과정(Designing and implementing curriculum and standards)에 대한 질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UNESCO에서도 2011년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개정하면서 0단계를 출생에서 만2세의 01단계와 3세에서 초등입학 전까지의 02단계로 구분하면서, 0단계의 교육제도로서의 정립을 위해 특히 교육과정의 관장 부서가 교육부여야 하고 교육과정에 있어 보호보다는 교육적 속성을 강조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제 0-5세 영아 대상의 교육과 보호에서도 교육적 요인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이 자명하며 당연히 지향할 바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당초 논의되었던 교과부로의 행정부처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기대하며,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라도 교과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교육적 요소를 강조한 누리과정의 운영이 시급할 것이다. 사실, 2012년의 만5세 누리과정 제정시부터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1969년부터 45년간 7차에 걸쳐 시행되며 수정되어 온 유치원 교육과정과 2007년 처음 제정된 표준보육과정을 같은 무게를 두어 졸속, 통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영역별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두고 영역별 명칭은 표준보육과정의 명칭을 붙이는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유아의 활동과 경험으로써의 교육과정의 실질적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 평가를 위한 기본지침이자 실행지침으로, 우리나라는 1969년에 이미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정하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서화된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유아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의 질일 것이다.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자료집이 통합, 집필되어야 하며,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자료집 집필에 있어 주제별로 수준이 각각이며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예를 들어 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교사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중당중당 놀놀이' 같이 활동 명칭을 교육과정의 주제명으로

진술한다거나 유치원의 초대 원장이 누군지 알아보는 등의 유아의 흥미나 이해 수준과 거리가 먼 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을 교직 이수자로 격상시켜야 한다. OECD는 2012년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 관리 방안 5가지를 제안하면서 교원(Improving workforce conditions, qualifi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질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UNESCO에서도 2011년 ISCED 0단계의 교육제도로서의 정립을 위해 교직원의 자격으로 교육학 이수와 교사자격증자로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바, 초기에 언급되었던 누리과정 교사의 자격 제한 방침을 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집의 활동들은 예시일 뿐이므로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계획 시에는 선택과 수정이 필수적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시 흥미영역에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 등의 보육과정의 내용 영역의 명칭을 붙이는 혼돈을 필자는 경험하였다. 어쩌면 그러한 혼돈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기관과 학급 수준, 그리고 유아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된 질 높은 교사의 배치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중앙집중식의 강의 중심 누리과정 연수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에 의한 연수로 바꾸어야 한다.

3)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 중심 장학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문서일 뿐 실제로 연간, 주간, 일일계획안 작성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진보 성향 교육감에 의해 일일계획안 작성을 잡무로 취급하여 생략하는 지자체들이 몇 곳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도 없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구분도 없는 유아학급의 일과 운영에서 평가지표에도 포함된 일일계획안을 작성치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다행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일일계획안 작성이 일반적이며 어린이집도 영아학급까지도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종일제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012년 종일제란 용어가 없어지고 방과후 과정이란 용어로 대체되면서 특성화 활동 중심으로의 운영으로 바뀌었다. 방과후 과정은 초중등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상의 편리함은 줄 수 있겠으나 기본과정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의 용어로, 종일제 대신 방과후 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 동향이나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종일제 프로그램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확대된 것이기는 하나 질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경우 유아의 발달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오전과 오후를 연계하여 하루 전체에 걸쳐 유아가 편안하게 균형잡힌 일과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용어의 사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아의 입장에서 피로하지 않고 흥미롭고 균형잡힌 일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내실화의 방향은 놀이중심의 총체적 접근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5) 혼합연령 학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혼합연령 학급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혼합연령 학급이 많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단일연령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실제로 원아수가 20여명

인 공립유치원에 교직원이 7-8명 되는 곳도 있다. 혼합 연령 집단의 교육적 효과는 Piaget나 Vygotsky의 이론에 의해 지지될 뿐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실증된 바 있다. 더욱이 형제가 없는 독자가 대부분인 현대의 유아들에게 혼합연령 집단이 주는 경험은 교육적 가치가 크므로, 단일연령 학급 증설에 의한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더라도 혼합연령 학급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 제기한 누리과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숙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올해 12월 발표된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인 국가수준 평가 안이 잘 작성되고 시행되어 누리과정에 의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질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행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는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평가 유형인 인증평가체제(accreditation system)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표에 관련된 자세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치원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행정부처의 통합이 우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의 통합이 과연 가능할지 우려가 앞서지만, 인증평가체제로의 통합이 누리과정이 질 높은 활동과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학회 활동 보고

1. 2014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4월 26일(토) 오전 9:30~ 16:00
- 장 소 : 강남대학교 살롱관 B1 108호
- 주 제 :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영·유아의 역량강화**

기조강연 -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주제강연1 -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성격의 역할

김영훈(카톨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주제강연2 -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영·유아 역량강화

이방실(가천대학교 세 살마을연구원 연구교수)

- 참석인원 : 총 222명

2. 2014 한국유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11월 1일(토) 오전 9:30~ 16:00
- 장 소 : 강남대학교 살롱관 B1 108호
- 주 제 : 한국유아교육의 도전과 과제

기조강연 - 유보통합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주제강연1 -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과제
장석환(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기관)

주제강연2 - 누리과정발전포럼을 통해 본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향후과제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 참석인원 : 총 300명

3. 2014년 연구소모임

1) 동계 연구소모임

• 51차 : 「유아의 성향(Disposition) 이해하기」

- 일 시 : 2014년 1월 17일(금) 9:30~12:30
- 장 소 :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
- 발 표 1 : 유아의 기질과 성격 이해하기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발 표 2 : 유아들의 생각 이해하기
김희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52차 : 「유아교육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활용」

-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9:30~12:30
- 장 소 :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
- 발 표 1 : 유아교육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활용
손행미(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발 표 2 : 유아교육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연구
이현진(대구카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하계 연구소모임

• 53차 : 「미디어 및 사진의 유아교육적 의미」

- 일 시 : 2014년 7월 2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5층 세미나실
- 발 표 1 : 영화와 사진의 유아교육적 의미와 활용
정영근(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발 표 2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아교육
임은미(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54차 : 「유아교육에서 미디어 및 사진을 활용한 연구방법」

- 일 시 : 2014년 7월 9일(수) 9:30~12:30
- 장 소 :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
- 발 표 1 : 사진을 활용한 유아교육 연구방법
최연철(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발 표 2 : 영화를 활용한 유아교육 연구방법
조희연(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 「육아지원연구」 9권 발간

• 9권 1호

- 박미현, 김수영 -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변인 분석
- 김정원, 김정실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지능과 행복감 간의 관계
- 이소원, 문은식 - 예비유아교사의 애착안정성 및 낙관성과 희망의 관계
- 고경나, 오은순 - 유아 수와 연산교육 실태와 교사 인식조사
- 고정리 - 유아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분석
- 임부연, 전경미, 김성숙 - 유아예술교육의 비평적 이해, 유아교사의 예술 및 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최은영, 황성온 - 공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기관선택이유 및 만족도 분석
- 김정은, 홍순옥 - 유치원 수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권연정 - 만2세반 영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심으로
- 조순옥 -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공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 박희숙 -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김민영, 손수민 - 만 2세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어린이집 경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정가윤, 이영미, 신정아 - 만 5세 유아의 종합적인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고찰

• 9권 2호

- 김은주, 강현미, 송주은-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조부모 양육에 관한 이미지 연구
- 김형미-A Literature review of AAC strategies with children during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 이상은, 김현수-유아교사의 음악구성요소에 대한 교수실제와 음악교수효능감과의 관계
- 한희경-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 및 경험요인
- 조운주-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 황보영란-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연혁적 고찰-법의 성격과 법체계의 관점에서
- 서현선, 박혜준- 자유선택활동시간의 놀이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영상자료를 활용한 심층면담
- 최정아, 권수연, 유주연-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자아개념 및 음악적 개념에 대한 실제이해와 음악교수 효능감과의 관계
- 김순환, 김하진, 나원정-유아교사-어머니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상호인식
- 임원신, 이진화-유아교사의 조직커뮤니케이션만족, 소진,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 정미라, 권정윤, 이방실-유치원 조직특성과 교사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 9권 3호

- 김언경 - 어머니가 인식한 형제 차별대우, 형제 상호작용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 한누리, 문혁준 -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 박영미, 이순자 - 저널쓰기를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이미지와 이상적 유아교사 이미지 탐색
- 최일선, 김정신 -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행
- 이성희-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
- 이병호-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9권 4호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어린이집의 조직특성과 교사의 효능감, 조직몰입 및 소진의 구조적 관계
- 최윤정- OECD의 최적의 학습준거에 근거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분석
- 이춘자- 예비유아교사의 수업계획에 대한 인식 분석 -교육실습을 중심으로
- 조성연- 유아의 그림에 나타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의미
- 임은미- 예비유아교사의 인지발달수준과 인식론적 관점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효과

- 홍용희, 김혜전, 전우용 - 유아들의 그림에 나타난 행복한 경험에 대한 인식
- 김난실 -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3,4,5세)에 수록된 유아 노래의 음악적 난이도 분석

2 회원 동 정

< 연 구 >

1. 문무경(이사): 2014년(연구년) 4월부터 OECD 파리본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참여

< 임 용 · 취 임 >

1. 문연심(회장) : 강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원장(보직)
2. 박은혜(이사) : 한국OMEF위원회 회장(2015.1.1)
3. 오은순(이사) : 한국 포괄영유아아동교육지원학회 초대회장
4. 이명희(이사) : 한국 유아특수교육학회 회장
5. 임은미 : 성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임용(2014.3.1.)
6. 정미리(고문) : 가천대학교 글로벌 교양학부 학장
7. 정혜순(이사) :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8. 한미리(부회장) : 경남대학교 교학 부총장

< 저서출판 >

1.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지음(2014).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어린이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 서울: 형설출판사.
2. 문연심(2013).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서울: 공동체.
3. 신은수 옮김, 비비언 거신 페일리 지음(2014). 따들림 없는 교실. 서울: 샘터.
4. 이춘자, 조인경(2013).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5.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화유치원(2014). 이화유치원 역사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화유치원(2014). 유아인성교육실제 사례보고서. 교육부(미간행).
7. Graue, M. E., & Walsh, D. J. (2014). 어린이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홍용희, 이경화, 배지희, 정혜옥 역. 경기도: 파워북. (원저출판 1998)